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이해경 소하 데레사, 송경화 바르바라

다음주 미사 독서: 유현형 사도요한, 오재영 제노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손준규 요셉,
손재규 마티아

금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다음 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3 구역

주 일 미 사

고 백 성 사

성 가 대 연 습

친교 /간식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교리 모임

골프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11월 30일)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게시판 참고)

미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2 구역

3 구역

대학원 구역

학부생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매월 첫째주 토요일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정

미정

† 오늘의 묵상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인 1970년대, 많은 이들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좋아하며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별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텅 빈 얼굴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 우리와 함께하소서. 이 노래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한 기득권층을 비판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금관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으로 말미암아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는다면 예수님께 금관을 씌워 드리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며 권력에 기대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한 몸을 던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우리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가난하게 사신 임금, 남을 섬기신 임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임금입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99

교무금: \$ 270

합계: \$ 569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그리스도왕 대축일]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11월 24일

<제 1 독서> 다니엘 예언서, 7, 13-14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 1, 5-8

회답송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복음, 18, 33-37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33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73 봉헌: 151 성체: 160 파견: 75



대림, 기다림의 의미

박정은 수녀 (소피아, 홀리 네임즈 수녀회)

대림절은 나에게 설레임의 시간이다. 웬지 대림 기간 동안 새벽미사 가는 길은 하나도 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림은 내게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초대되는 시간이다. 신앙의 신비를 표현하는 보라색으로 장식된 제대와 4 개의 아름다운 초가 놓이는 대림환은 ‘하느님은 아름다움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게다가 대림기간에 읽는 독서 말씀들은 기다림의 희망과 구원의 설렘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들로 창조주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을 이야기한다. 대림기간에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은총표를 받기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선생님께 내미는 어린이들의 예쁜 손이다. 이렇듯, 무언가 설레고 푸근한 대림 한가운데로 그렇게 성탄은 우리 안으로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다린다면, 그건 설레는 기쁨이 아닐 것 이다. 무턱대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 기다림이 한편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으나, 매우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생뚱췌베리의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여우는 올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 지기 시작할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 지겠지. 네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 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언제 마음을 끈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를 거야”라고. 대림이란 시간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인지 헨리 나웬의 제네시 일기에도, 침묵을 지키는 트라스피트 수사님들조차도 터져 나오는 성탄의 기다림의 기쁨을 누르지 못해, 조금씩 수련수련 침묵이 깨어지고, 성탄에 이르러서는 환희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임하심, 두려움이 뒤섞인 기다림

그러나 만일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다림과 기쁨만을 이야기 한다면, 온전한 의미에서의 대림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림은 사실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기다림을 담고 있다. 하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임하심, 즉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다. 첫 번의 기다림이 설레고 기쁘기만 한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 기다림은 마지막 심판이라 좀 무서운 감정이 뒤섞인 기다림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맘속에, 두 번째 기다림은 슬쩍 모른 채 하고 싶은 심정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 두 번째의 대림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미 온,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already, but yet)”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영화를 보아서인지, 마지막 날, 주님이 도래하시는 날을 생각하면, 공포가 앞선다. 유향불, 최후의 심판, 그리고 아마겔돈 전쟁을 연상한다. 요즈음 같이, 생태계의 이상, 지구 온난화,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마지막 날이 도래한 것 같은 불안도 생긴다. 마야 달력에 의하면, 2012 년 12 월 21 일 인간성의 급진적 변화가 일어난다고도 하고, 그래서 급진적 변화란 무슨 뜻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은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고, 종말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등장하는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이 주종을 이룬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도 결국 그런 종말적인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종말을 더욱 두렵고 무서운 시간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은, 중세 교회의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 즉 천당의 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고, 천사가 저울을 들고 죽은 영혼이 살아생전에 행한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재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과연 두 번째의 대림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일까?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 공지사항

1. 미사 후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고생해 주신 성모회와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그 재림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서의 묵시문학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문헌은 박해 받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쓰인 글이다. 다시 말해 저자가 소통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독자는, 박해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다. 그들에게, 로마 제국의 폭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는지 아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우주적 전쟁이란 비유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 문헌, 특히 요한 묵시록, 혹은 이 문헌에 쓰인 문학적 비유들이, 21 세기를 사는 독자들의 상상력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활발히 작용하는 것 같다.

동화 <강아지똥>과 강정마을에서 찾은 구원과 종말론적 희망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핵심적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어린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똥구는 그런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실현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는 구원과 종말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고, 구원이 이 땅에 인간의 일상 속에서, 인간의 노동과 땀 가운데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듯이, 종말도, 역사의 한 가운데, 즉 일상의 날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역사 한 가운데서 일어난 구원은,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작은 몸짓 안에서, 종말 사건, 즉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종교학 시간에, 개인적 구원과 공동체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을 보여 주고, 제주도 강정 마을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강아지 똥을 보여주자, 처음에 학생들은 웃으며 장난치듯 보기 시작하더니, 결국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학생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저자가 내가 존경하는 “권. 정. 생.” 이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학생들은 강아지똥이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그 이야기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해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나는 강정마을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에게 제주도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양이었다. 나도 강정마을의 지킴이들이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는 비디오를 보며, 대림 3 주에 우리가 함께 읽는 스바니아 3 장 “명절이라도 된 듯 춤을 더듬실 추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이 구절을 떠올렸다. 많은 투쟁의 장면이 있었지만, 내겐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투쟁이 가장 종말론적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미국의 쇼핑 몰에서는 11 월 초부터 성탄 노래를 틀어 놓고, 정신없이 ‘상업주의’가 조장하는 성탄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다. 올해는 대림 4 주가 12 월 21 일 이라, 더욱 대림 기간이 짧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림의 기다림, 그 설렘이 없다면, 성탄의 기쁨이란 추상적이고 천박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임한 하늘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으로 설레며, 무언가를 서둘게라도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극적인 선과 악의 우주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대림을 살아야 할까. 대림은 짧아, 자칫 하면, 어영부영 성탄으로 넘어간다.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다림에 충실해야 한다. 이미 여기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늘나라를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now here)가 아니면, 아무데도 없는 것(no where)을 깨닫고, 대림의 시간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이다.